

# RIA 출시로 해외투자자금 유턴 기대 고환율·美 증시 변수에 복귀 신중론

## RIA 계좌 개설 시작

해외주식 매도 뒤 국내 재투자  
5월 말까지 전액 감면 적용  
7월 말까지 80% 공제 혜택  
세제 유인에도 자금이동 변수  
실제 복귀 규모 더 지켜봐야

#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미국 주식 일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쌓인 수익에 대한 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익이 나도 세금 신고가 번거롭고 부담도 커졌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부는 국내로 돌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황모(40)씨는 당장 해외주식을 팔 계획이 없다. 그는 “환율이 높아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인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미국 증시가 흔들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 국내시장으로 복귀는 신중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RIA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근거로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증시 수급 개선과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고환율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운데 'RIA' 경로를 따라 이동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에 실제 자금 복귀 규모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투자자는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전 계좌 합산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세액의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약 2180억달러로,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27조원에 달한다. 개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묶여 있는 만큼 RIA 도입이 실제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800만원에 사서 4800만원에 팔았다면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수익 2750만원에 대해 약 6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RIA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단기적인 매도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서학개미 자금의 유턴 규모에 쏠린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미국 증시 조정으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버틸 때’라는 투자 심리도 적지 않아 제도 효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유인 자체는 분명하지만 실제 자금 이동 속도와 규모는 환율과 글로벌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단기 성과보다 국내 증시의 중장기 수급 기반을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미래운용 “GTC서 메모리 위상 변화 확인”

## GPU 넘어 메모리·패키징 주목 에이전틱 AI 확산에 중요성 부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역할 커져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 변화가 확인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TIGER ETF’ 반도체 산업 최신 트렌드 웹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GTC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 변화”라며 “과거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조적 역할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AI 시스템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계획, 실행, 점검을 반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간 결과를 저장하고 재호출하는 메모리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맞물려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고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D램(DRAM) 공급도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후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글로벌 메모리 업체의 실적 개선 역시 업황 회복과 수요 확대 기대를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GTC를 통해 차세대 HBM 공급 역량과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부각한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HBM4 관련 기술 리더십과 함께, 추후용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AI 밸류체인 내 전략적 위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경쟁력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AI 메모리 핵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에 따른 핵심 수혜 축으로서 중장기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운용은 “GTC 2026은 AI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 추론 효율화·메모리 중요성 확대·패키징 혁신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TF운용본부 정의현 본부장은 “‘TIGER 반도체 TOP10 ETF’를 통해 관련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의 경우 ‘TIGER 반도체 TOP10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반도체 업황 반등 국면에서 수익 변동성을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허정윤 기자

# KPMG, 차기 글로벌 수장에 게리 윙그로브

현 COO 글로벌 전략·운영 통합 주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게리 윙그로브(Gary Wingrove·사진)를 KPMG 인터내셔널의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4년이다.

게리 윙그로브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임하며, KPMG의 글로벌 전략인 ‘컬렉티브 스트라티지(Collective Strategy)’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운영 통합, 지역 클러스터링, 글로벌 투자 전략 정비, 전략적 제휴 확대, KPMG 딜리버리 네트워크(KDN) 성장 등 주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조직 혁신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COO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KPMG 호주 CEO를 역임하며 매출과 수익성, 인력 규모를 약 두 배로 확대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재편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찰력과 실행력, 가치 중심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게리 윙그로브 차기 글로벌 회장 겸 CEO는 “전 세계의 뛰어난 KPMG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첩성과 전문성,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PMG는 전 세계 약 140개국 27만6000명의 전문가들이 감사(Audit), 세무(Tax), 재무자문(Deal Advisory), 경영자문(Consulting)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증시 급등락에 반대매매 분쟁 증가

금감원, 신용용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면서 신용용자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관련 분쟁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용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며 반대매매가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분쟁은 ‘사전 안내 미수신’이다. 투자자들은 “통보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문자·전화 등으로 사전 통지를 했음에도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번호 차단 여부 등 기본적인 수신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예상보다 과도한 매도 물량이다.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 규모의 주식이 매도됐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는 약관상 담보평가 할인율이 적용된 결과다. 투자자는 신용거래 약관에 명시된 담보 산정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hatGPT로 생성한 신용용자·반대매매 상환에서의 강제 청산 압박 이미지.

담보비율 판단 시점도 혼선을 낳는다. 장중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안심했다가, 장 마감 후 기준에서 미달로 판단돼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대매매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인식도 바로잡았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우며, 실제 손실은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장기 보유를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핵심 보유 종목이 매도된 사례도 있었다.

/허정윤 기자

# 하나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해외여행·유학·송금 환전 가능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 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의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

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